

교황의 힘

교황의 리더십



큰 별이 졌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한 종교 지도자의 장례식에 지구촌 전체의 눈이 쏠렸다. 나라, 인종, 종교의 장벽을 넘어 온 인류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겸허히 고개를 숙였다.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교황의 장례식을 중계하였고, 북한에서도 1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을 정도이다. 무엇이 이토록 한 종교 지도자의 죽음 앞에 온 지구촌이 순수하고 거룩한 애도를 표하게 한 것일까? 그것은 같은 종교를 믿느냐의 여부를 떠나 신념에 찬 한 동시대인의 일관된 헌신에 대한 감화 때문일 것이다. 동시대인에게 친숙한 그러나 위엄있는 교황으로 길이 남을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분명 서로 다른 처지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조차 깊은 영감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 위대한 동시대인이었던 교황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 벤처인들이 되새겨 볼만한 리더십 2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도자는 먼저 행동하라

당시 공산국가인 폴란드인 출신이자, 455년만에 비이탈리아인으로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취임사부터 남달랐다. “교황은 바티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초원의 유목민부터 수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취임사의 다짐처럼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어느 교황보다 많은 나라를 방문했고, 어느 교황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수치상으로 교황은 생전 지구와 달 사이의 3배 거리를 여행하였으며, 세계 129개국을 방문, 1590여 차례 이상 국가원수들을 접견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바티칸의 교황청을 르네상스 시대 이래 최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로 바꿨으며, 그간 멀게 느껴졌던 교황의 존재를 모든 인류에게 친숙한 얼굴로 각인시켰다. 바티칸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1981년 암살 위기를 겪으면서도 취임사의 다짐을 꺾지 않은 교황의 모습은 진정 위대한 지도자의 덕목이 자기희생과 신념을 몸으로 실천하는 헌신에 있음을 실천 속에서 보여주었다. 이는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정신과 용기

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리라.

지도자는 SQ(Spiritual Quotient)가 높아야 한다

요즘 리더가 가져야할 능력으로 IQ, EQ, NQ, SQ 등 여러 가지 척도가 대두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영적지수 SQ(Spiritual Quotient)이다. 이는 종교에 심취한 정도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높은 비전을 스스로 갖게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능력을 가리킨다. IQ와 EQ가 현재 처한 패러다임을 빨리 파악하게 하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이라면, SQ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케 하고, 새로운 질문을 갖게 하고, 혁신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구성원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하고 창조하게 만드는 지능, SQ지수는 종교인들에게 높게 나타나는데 그중 으뜸이 요한 바오로 2세이다. 교황은 26년 6개월 동안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히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삶과 세계 인류가 처한 상황을 뒤돌아 보고 반성케 하였다.

교황의 직관에 따른 조용한 행보는 역사의 패러다임과 세상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다. 공산 치하의 고국 폴란드를 방문해 자유의 불씨를 지폈으며, 쿠바에선 카스트로를 꾸짖었으며, 이스라엘에선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한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가톨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갈릴레오에 대한 징계와 십자군전쟁의 독선과 잔혹 등 1천 년 전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이런 교황의 회개는 전 세계인들에게 천 년의 역사관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 천 년을 가로지른 용기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큰 영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까지도 교황은 동시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던지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더 큰 비전을 응시하게 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많은 이들에게 교황의 헌신과 도전, 용기는 큰 영감을 주는 것이겠지만, 특히 영속하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세상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인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깨달음을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까.